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상품 무역 적자 폭 기록적
- Bloomberg: 연준, 금리 일시 동결하며 트럼프 정책 여파 지켜볼 듯

[미국 금융]

- WSJ: WSJ 달러 지표 0.4% 오른 102.16 기록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전 상무장관 “트럼프, 관세 부과 심각하게 고려”
- Bloomberg: 트럼프의 관세는 이전에 미 성장에 타격...다시 위협

[물류]

- FinanceYahoo: 아시아와 미 컨테이너 요금 하락...관세 위협 그림자

[오일]

- WSJ: 유가 상승, 하지만 하락 압박 여전히

[인공지능]

- WSJ: 딥시크를 반기는 미국 기업들
- WSJ: 딥시크는 AI 모델 학습에 ChatGPT를 사용했을까?
- WSJ: 딥시크의 비상, 엔비디아 약점 노출 시켜
- TechCrunch: ChatGPT 사용자 85%가 남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스타벅스 메뉴 30% 줄인다
- WSJ: JetBlue, 실적 반등에 실패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Merchandise Trade Deficit Widens to Record on Rise in Imports

미 상품 무역 적자 폭 기록적

- 12월 미 상품 무역 적자 폭이 수입 규모 증가로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무역 적자 이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개선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상품 무역 적자 폭이 18% 늘어나 1천2백2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다.
- 수입은 4% 늘어난 2천8백96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재 수입이 지난 199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수출은 4.5% 감소한 1천6백75억달러를 기록했다.

- 무역 적자는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수입 증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전에 기업들이 물량 수입을 서두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to Hold Rates Steady and Brace for Trump 연준, 금리 일시 동결하며 트럼프 정책 여파 지켜볼 듯

- 연준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좀 더 지켜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금리는 작년에 3차례, 총 1%포인트 인하했었다. 이번 주에 금리가 동결되면 4.25%~4.5%를 유지하는 것이다.
- 연준 관리들은 이미 건조한 경제에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해 올해 금리 인하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이다.
- 연준 관리들은 트럼프의 무역, 세금, 이민,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정책들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The WSJ Dollar Index Rises 0.4% to 102.16 WSJ 달러 지표 0.4% 오른 102.16 기록

- 어제 화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달러 지표는 0.44% 정도 상승한 102.16을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 12월 18일 하루 최대 상승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 그리고 3일 연속 하락세를 되돌린 수치이며, 지난 2022년 9월 27일의 기록적인 증가 105.14에서 2.8% 하락한 수치다.
- 올해 1월 10일의 52주간 최고치인 103.61에서 1.39 떨어진 것이며, 지난해 9월 27일 최저치 95.31로부터는 7.19% 상승한 수치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Wilbur Ross Says Trump Is 'Deadly Serious' About Using Tariffs

전 상무장관 “트럼프, 관세 부과 심각하게 고려”

-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연방상무장관을 지낸 Wilbur Ross는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 들어서 동맹국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관세 조치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deadly serious)’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그는 트럼프가 결국 전면적인 접근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그는 트럼프가 국내 제조 산업의 진작과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뜻에 양보하는 것을 포함한 목표 이행을 위해 관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특정 표적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그는 특정 국가들에 대해 그리고 개별적인 제품군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s Tariffs Hit US Growth Before, and Threaten to Again 트럼프의 관세는 이전에 미 성장에 타격...다시 위협

- 트럼프의 관세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역 전쟁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트럼프는 이번 주 월요일에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를 시행하고 미국인과 기업에 대한 감세가 시행되면 일자리와 공장이 미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그가 1기 행정부 때 즉, 전면적인 관세보다 표적 관세를 시행했던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에 제조업 일자리는 4만3천개가 줄고, 산업생산도 위축되고, 비즈니스 투자도 중단되고, 실제 미국인 평균 수입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소비자 수입이 80억불을 기록했었다.

Bloomberg 기사

[물류]

FinaceYahoo: Asia-US ocean rates trend lower but Trump tariff threats shadow trade

아시아와 미 컨테이너 요금 하락...관세 위협 그림자

- 중국의 제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이 오늘 수요일 시작된 구정 휴일로 인해 활동이 줄면서 태평양 노선의 컨테이너 요금이 지난 수 주 동안 하락했다.
- 아시아 서태평양 노선의 40피트 컨테이너 요금은 지난 1월 24일 끝나는 주에 7% 하락한 4천9백38불로 나타났다고 Freightos Baltic Dry 지수는 밝

했다. 아시아와 미 동부 요금은 40피트의 경우 1% 줄어든 6천6백56달러를 기록했다.

-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과 후티 반군의 공격 중단에도 불구하고 홍해 운항은 장기적으로 조용해질 때까지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FinanceYahoo 기사

[오일]

WSJ: Oil Rises But Remains Under Pressure Amid Tariff Threats 유가 상승, 하지만 하락 압박 여전히

- 장 초반 유가가 상승했지만, 글로벌 리스크 감소와 미국 관세 위협으로 하락 압박이 여전히 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6% 상승해 각각 76.65달러와 73.64달러를 기록했다.
- ING 분석가들은 “주식처럼 석유 시장도 매도세를 피할 수 없다. 관세 위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글로벌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번 주 월요일 트럼프는 외국산 반도체, 의약품, 일부 금속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U.S. Businesses Already Love DeepSeek 딥시크를 반기는 미국 기업들

- 중국 AI 기업 DeepSeek는 최근 R1 모델을 출시했다. R1 모델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성능은 미국 고급 반도체 AI 모델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기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심과 미국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 하지만 높은 AI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ynolds American CIO인 Aaron Gwinner은 “R1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복제해 기술 비용을 낮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일부 기업들은 딥시크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New York Life 최고 데이터 및 분석 책임자 Don Vu는 딥시크가 서비스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영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안 문제로 기존 딥시크 앱 대신 오픈 소스 버전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WSJ: OpenAI Is Probing Whether DeepSeek Used Its Models to Train New Chatbot

딥시크는 AI 모델 학습에 ChatGPT를 사용했을까?

- OpenAI는 중국 AI 기업 DeepSeek가 AI 모델을 학습에 ChatGPT를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 OpenAI는 오늘 월요일, 중국 기업들이 '증류(distillation)'라는 기술로 자사의 데이터를 빼돌리려는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증류는 쉽게 말해 더 크고 똑똑한 AI 모델에서 반응한 데이터 베이스로 작고 효율적인 AI 모델을 훈련시켜 개발하는 방식이다. 큰 모델의 추론 방식을 작은 모델이 모방하는 것이다.
- OpenAI는 "미국 기술을 훔치려는 적들이 있다. 중국 기업은 미국의 AI 모델을 끊임없이 모방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AI 책임자 David Sacks는 DeepSeek가 OpenAI를 증류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DeepSeek는 증류 기법을 이용했지만, ChatGPT가 아닌 자사 모델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WSJ 기사

WSJ: DeepSeek's Rise Exposes Nvidia's Weakness

딥시크의 비상, 엔비디아 약점 노출 시켜

- DeepSeek의 비상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약점을 노출시켰다.
- 엔비디아는 지난 4분기에만 63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그동안 AI 붐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하지만 DeepSeek의 등장으로 고급 반도체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약 17% 급락했었다.
- 엔비디아는 DeepSeek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AI 모델을 사용하려면 많은 수의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 AI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에 대한 수요가 넘치던 기존 상황이 이제 뒤집어질 수 있다.
-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 고객들도 이제 자체 AI 칩을 개발해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다.

WSJ 기사

TechCrunch: ChatGPT's mobile users are 85% male, report says

ChatGPT 사용자 85%가 남자

- 앱 분석 업체 Appfigures에 따르면 2024년 AI 앱에 대한 전체 소비자 지출은 14억2천만 달러였다. 이는 2023년보다 274%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특히 ChatGPT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ChatGPT 모바일 앱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다. 50세에서 64세 사이가 20.2%로 두 번째로 많은 연령층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용자 중 84.5%가 남자였다.
- 2022년 Pew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AI에 더 회의적인 경향이 있다. Axio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3%가 자녀의 AI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남성은 26%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 또한 McKinsey는 여성이 남성보다 AI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TechCrunch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Starbucks is cutting 30% of its menu 스타벅스 메뉴 30% 줄인다

- 스타벅스가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을 단순화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CEO Brian Niccol은 “음료와 음식 모두 옵션이 약 30% 감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는 올리브 오일과 아이스 에너지 음료 라인업을 줄였다. 반대로 코르타도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 피스타치오 음료, 두바이 말차 음료를 추가하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빠르게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는 4분기 연속 실적이 하락하고 있었다. 작년 12월 29일에 끝난 분기 동안 개점한 지 1년 이상 된 미국 매장 매출은 65 감소했었다.

CNNBusiness 기사

WSJ: Why JetBlue's Outlook, Turnaround Efforts Disappointed Investors JetBlue, 실적 반등에 실패

- JetBlue가 경쟁 심화, 매출 전망 악화로 인해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 Melius research의 분석가 Conor Cunningham은 “JetBlue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 가이드가 매년 감소했다. 특히 가용 좌석 마일당 수익이 감소했다. 그래서 주가가 25% 이상 하락했다.”라고 말했다.
- JetBlue는 소비자 선호도 변화와 항공기 문제로 비용이 증가해 실적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도 치솟고 있다.
- Citi 분석가 Stephen Trent는 “수익성이 높은 공항은 대형 항공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JetBlue 같은 저가 항공은 비용 상승을 상쇄할 충분한 수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머스크의 X "비자와 손잡고 올해 금융서비스 출시"
야카리노 CEO, 엑스에 발표...P2P 결제·송금 기능 등 포함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올해 안에 디지털 결제 기능 등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린다 야카리노 엑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모든 것의 앱을 위한 또 다른 이정표"라며 "비자가 올해 데뷔하는 X머니(XMoney) 계좌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파트너"라고 발표했다.

야카리노 CEO는 세계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의 제휴를 통해 X머니 계좌에서 글로벌 송금 기능 '비자 다이렉트'를 통한 안전하고 빠른 자금 이체, 이용자의 직불 카드에 연계된 개인 간 금융거래(P2P) 지불·결제 등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